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7년 3월 15일

제 25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2017 정기 총회 만장일치로 임국희 회장 연임 결정

클럽 사상 최초의 1박 2일 창녕 여행 시니어복지박람회 소셜 라이브 방송 등 2016년도 활동 상황 소개



사진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송현식, 이영호, 유지철, 김상준, 이세진, 전우벽, 박영웅, 곽영신, 김관동, 김현욱, 정연호, 정도영, 이해열, 김규홍, 황인우, 박찬숙, 채영신, 차기정, 안주희, 정영희, 박민정, 남궁미, 배유신, 임화숙, 백연숙, 전옥수, 정홍숙, 윤인구, 박종세, 전영우, 임국희, 황우겸, 임택근, 맹관영, 조길자, 김규은, 이해옥

임국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악몽의 시대, 또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고 행복하다. (남편을 떠나보내며) 감당할 수 없을 허무함을 경험한 제게 위로를 해주신 분들 생각하며, 앞으로 2년간 더욱 봉사하며 살겠다. 한 마음으로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을 이끌어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은 “작년 한 해 많은 일이 있었다. 4월엔 아나운서클럽 사상 최초로 1박 2일간 창녕 여행으로 결속을 다지고, 6월엔 황금메아리상 시상, 8월엔 황우겸 고문 미수연 개최, 그리고 11월엔 클럽 회원들의 진행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니어복지박람회에서 선택스2016 소셜 라이브 방송이 펼쳐졌다.”라고 아나운서클럽의 2016년도 활동 상황을 소개했다.

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6주년이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새 주소록을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한국아나운서클럽 2017 정기 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전직/곽영신, 권장수, 김규은, 김규홍, 김상준, 김현욱, 김형기, 남궁미, 맹관영, 박민정, 박영웅, 박종세, 박찬숙, 배덕환, 배유신, 백연숙, 송현식, 신은경, 안주희, 이보길, 이성화, 이세진, 이형균, 이해옥, 이후재, 임국희, 임택근 내외, 임화숙, 전영우, 전옥수, 전우벽, 정도영, 정연호, 정영희, 정홍숙, 조길자, 조석영, 주건국, 차기정, 차인태, 채영신, 황우겸, 황인우, 현영/KBS 김관동, 박소현, 유지철, 윤인구, 이광용, 이영호, OBS 최지해, 그 외 초록회 노영인,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루브넷 이해열 (가나다 순)

2면에 계속



클럽 발전 이끌어온 회원 여러분께 감사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기 총회가 3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린에서 열렸다.

이 날 모임에는 황우겸(전 KBS), 임택근(전 MBC), 전영우, 박종세(전 KBS) 고문을 비롯해 김규홍, 박찬숙(전 KBS), 차인태(전 MBC) 부회장, 그리고 클럽 모임에 처음 나온 곽영신(전 CBS), 백연숙(전 MBC), 김

형기(전 BBS) 회원, 지역에서 올라온 청주의 전옥수 회원, 전주의 주건국, 권장수 회원, 대구의 이후재(전 KBS) 회원 등 54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정홍숙(전 MBC) 회원의 오세영 시 ‘새해, 새 날은’ 암송 후 황우겸 고문이 발의한 임국희 회장의 연임 제청과 만장일치 동의에 이어, 김상준(전 KBS) 감사의 2016년 회계와 업무 집행 사항 감사 보고, 그리고 루브넷 이해열 대표의 스마트폰 주소록 설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아나운서클럽 스마트폰용 주소록 앱 제작

10년 만에 350여 명 수록한 최첨단 사이버 온라인 주소록으로 바뀌어

클럽 회원 주소록이 10년 만에 소책자에서 최첨단 스마트폰용 주소록으로 바뀌었다.

아나운서클럽은 퇴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개념의 사이버 주소록을 완성해, 2017년 3월 2일 정기 총회를 기해 공개했다.

스마트폰에 아나운서클럽 고유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른 회원의 주소나 연락처 검색은 물론, 국내외의 동료, 선·후배와 통화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다. 또한 수록된 정보의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신분 보안을 위해 각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클럽 사무국 운영자의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부인에게 정보 노출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아나운서클럽은 1991년 3월 아나운서동우회 시절



로그인 후 주소록 첫 화면

정리한 회원 명부에서 출발해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면서 2007년 4월에 200여 명의 회원 주소록을 소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그 후 2011년 3월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를 발행하며 주소록을 온라인상에 엑셀로 관리해왔으나, 2015년 12월 황우겸 고문이 주소록 제작용 기부금 100만 원을 회사함으로써 새 주소록 제작에 착수했다.

김규홍 부회장이 주축이 되어 350여 명에 달하는 퇴직 회원들에게 일일이 반송 우표를 동봉해 설문을 보냈고, 작년 하반기부터 편집위원들과 함께 개인 사진과 답변 등 회신을 점검하는 정보 수집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대에 걸맞게 정보 보안에 중점을 두고, 루브넷의 이해열 대표에게 의뢰해 스마트폰용 한국아나운서클럽 주소록을 개발하게 되었다.

50Km협동조합과 MOU 체결

[50+TV] 소셜 라이브 방송 등 통해 협력사업

(사)한국아나운서클럽과 은퇴자협회인 (사)50+코리아와 유대가 더 공고해졌다.

아나운서클럽은 2016년 12월 22일, 지난 8월 30일 업무협약에 이어 원활한 실무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50+코리아 산하 50+코리아미디어 협동조합(약칭 50Km협동조합, 이사장 한정주)과 두 번째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나운서클럽은 50Km협동조합과 함께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동영상 전기傳記를 비롯해, 새로운 삶의 적응 방식 관련 정보를 모바일로 전달하는 동영상 사용설명서, 신규 업소나 행사의 홍보 영상 제작과 시니어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인 [50+TV] 소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더 많은 협력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나운서연합회 제17대 염용석(SBS) 회장 취임

“시대의 아픔과 기쁨 나누는 알차고 단단한 조직 될 터”

SBS 염용석 아나운서가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제17대 회장(임기 2년)에 취임했다.

염용석 회장은 2월 24일 서울 여의도의 작은 음식점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이, 취임식에서 “앞으로 알차고 실질적이며 단단한 연합회 조직을 만들겠다. 아울러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아나운서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새 집행부는 SBS 이병희 연합회 부회장과 이현경 연합회 부회장 겸 SBS 협회장, 윤인구 KBS 협회장, 김범도 MBC 협회장, 김준우 OBS 협회장, 김필원 CBS 협회장, 나선홍 tbs 협회장, 남현용 극동방송 협회장, 김지현 평화방송 협회장으로 꾸러졌다.



염용석(SBS) 회장



이병희(SBS) 부회장



이현경(SBS) 부회장



윤인구(KBS) 협회장



김범도(MBC) 협회장



김준우(OBS) 협회장



김필원(CBS) 협회장



나선홍(tbs) 협회장



남현용(iebc) 협회장



김지현(cpbc) 협회장

황금메아리상 시상하는 다음 정례 모임은 오는 6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열빈

2017 정기 총회 시모저모

2부 사회자 김현옥(전 KBS) 회원은 “오늘만 술을 맘껏 복주福酒로 드시고 1년 내내 건강하시라. 건배사는 ‘아나운서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아무발!’”이라고 외쳐 큰 웃음을 주었고, 신은경 회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KBS아나운서실과 협업 소개 후 청소년 행복 캠페인 ‘고마워Yo’에도 힘을 보태달라. ‘항상 아름다운 우리들을 위하여, 향아리!’라며 건배를 제안했다.

현역을 대표해 먼저 마이크 앞에 선 KBS 김관동 실장은 “아나운서실장실에 있는 ‘중앙방송국을 빛낸 사람들’ 4개 족자에 460명, 미기재까지 500여 아나운서의 정기를 받아 KBS를 지키고 있다. BBC가 한국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예전 ‘미국의 소리’ 방송처럼 머잖아 BBC 파견 방송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인구 KBS아나운서협회장은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방송 자료조사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박찬숙 부회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니 뿌듯하다. 방송 환경이 냉온탕을 오가는 요즘, 선배님들을 생각하며 자존감 잃지 않고 깨끗하게 방송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영우 고문은 “스피치를 도입해 화법이란 이름으로 연구하고 알린 지 60년이 됐다. 방송에서 틀린 발음 들을 때가 있는데, [효과], [김밥]이 맞다. 현실성, 합리성이란 근본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영신 회원은 “MBC, CBS를 거쳐 국경원으로 이직해 퇴직 후 남양주에서 살고 있다. 제가 암을 이겨낸 비

결을 알려드린다.”라며, ‘춤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란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를 소개했다.

‘리포터계의 대모’라 불리는 백연숙 회원은 그간의 활동 상황을 전한 후 “임택근, 임국희 선배를 면접장에서 뵈었는데, 여기서 함께하니 감개무량하다.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 행복하다.”라고 인사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참석자 전원의 이야기를 들은 2017년 정기 총회는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아나운서클럽이 진정 발전할 것 같다.”라며 만세삼창을 제안한 임국희 회장의 폐회사로 아쉽게 막을 내렸다.



또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박찬숙 부회장, 전영우, 박중세 고문, 임국희 회장, 황우검 고문, KBS 윤인구 협회장, 김규홍 부회장, 임택근 고문, KBS 김관동 실장



연회비와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선배들의 품격과 열정 본받겠다는 OBS 최지혜 아나운서



청춘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조석영(전 MBC) 회원



“항상 아름다운 우리들을 위하여!” 신은경(전 KBS) 회원



많은 리포터를 양성한 백연숙(전 MBC) 회원



회원 가입 후 모임에 처음 나온 곽영신(전 CBS) 회원



청주에서 올라온 전옥수(전 KBS) 회원을 반갑게 맞이하는 채영신(전 KBS) 편집위원



김현옥(전 KBS) 회원, 유지철(KBS) 부장, 처음 참석한 김형기(전 BBS) 회원



전주에서 매년 올라오는 권장수, 주건국(전 KBS) 회원과 함께



안주희, 남궁미, 정연호(전 MBC) 회원



아나운서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6월 1일(목), 다음 정례 모임은 방송 잘하는 남녀 후배에게 <황금메이리상>을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더 많이 참석해 후배 아나운서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창간 6주년을 축하합니다
유지현 평창동계올림픽 외신 대변인을 제외한 편집위원 일동 -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형균(전 MBC), 황인우, 채영신, 이혜옥, 김규홍(전 KBS), 박민정(전 MBC), 황량전(전 KBS)

초대석

〈대한뉴스〉의 그 목소리
김승한(전 KBS)

조용한 카리스마 그는 표범의 등을 닮은 남자

— 유창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캐스터의 표상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동기 최선, 이승일, 소병규, 김기행, 강진희, 김승한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1960년대, 극장의 스크린에서 막 빠져나온 듯싶은 남자들 중에 분위기 다른 사내가 눈에 들어온다. 스물 일곱살쯤 됐을까. 당시로서는 큰 키였을 180cm 남짓한 그 사내는 조선 선비들의 그림을 닮았다. 생략할 수 있는 데까지 생략해 버리는 '세련'. 그의 이름은 김승한. 2017년 2월 14일, KBS 아나운서 이재후, 한상현이 KBS 아나운서교육장에서 그를 만났다.

이재후/한상현(이하 '이/한'): '1963년 8월 입사'면 당시 유일한 텔레비전방송국이었죠? 얼굴에 자신이 있으셨군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단지 얼굴이 맑다는 얘기는 들었었지(웃음). 그런데 소리는 일찍 트였어요. 한학을 하신 선친 덕분이지요. 광복이 됐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선친이 고향인 충남 부여 홍산고교 교사였는데, 한글로 나온 신문문을 다 갖다 주시고는 소리 내어 읽게 하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큰소리로 신문과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소리 내 읽다 보니 다 외워지더군요.

이/한: 낭독 훈련을 하셨으니 아나운서가 제격이었겠네요.

허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선친이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고학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활고를 해결하려 18살 때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했지요. 초임지가 충북 청주였는데, 제가 배웠던 대로 낭독을 중시하며 가르쳤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물러가면 우편으로 배달돼온 서울신문을 예전처럼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7년간 문교부 지정학교 연구교사로만 있었으니 평가도 좋았던 셈이지요. 그때 같은 학교 여선생을 반려자로 만나는 행운도 따랐지만, 교편 생활이 적성에 맞지는 않았어요.

원래 제 꿈은 배우였습니다. 고향에서 동네 청년들을 조직해 연극을 만든 적이 있어요. 대본 작성부터 연출, 주연까지 다 했는데, 공연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기억도 나고, 학생들 하고 후에 듣는 라디오 뉴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1962년에 중앙방송국 텔런트 1기 응시원서를 냈지요. 그런데 수험표를 받으러 가니 수험표가 없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낸 게 마감일 지나 도착했으니 별 수 없잖아요. 그 이듬해 아나운서 시험을 봤지요.

이/한: 혹시 당시 수험번호를 기억하시는지요?

129번이었습니다.(야!) 아나운서만 방송을 하던 그 시절, 아나운서는 대단한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경쟁률은 99대 1이었는데, 1차가 음성 테스트, 2차가 실기, 3차가 면접이었죠.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40명이 국어, 헌법, 세계사 등 8과목, 공보부 필답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 10명, 여자 10명, 공무원 시험으로는 최초로 많은 아나운서를 선발한 해였는데, 동기 중에 저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한: 어떤 프로그램을 맡으셨나요?

지방 근무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 텔레비전 뉴스를 했어요. 라디오 뉴스가 훨씬 영향력이 컸던 때입니다. 특히 〈정오뉴스〉는 스피커가 있는 곳이면 모두 틀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나운서실장이 담당했지요. 그런데 1965년 중반 어느 날, 호랑이 방송과장으로 유명한 장기범 선배님이 아나운서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큰소리로 "김승한 씨! 내일부터 김승한 씨가 〈정오뉴스〉를 하세요" 하시더군요. 입사한 지 만 3년도 안 된 햇병아리를 〈정오뉴스〉에 배당하는 모험을 하신 거죠. 훗날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1라디오 〈정오뉴스〉를 20

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장 과장님이 1968년에 "국립영화제작소에 가 봐!" 해서 말씀하신 분을 찾아갔더니 〈대한뉴스〉 오디션이더군요. 그때부터 1985년까지 제가 담당했던 〈대한뉴스〉 테이프 1,000여 개, 그 외 KBS 영상실록 광복 50년 특집 다큐멘터리 등 내레이션 100여 개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한: 궁금합니다. 장기범 과장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해야 하니, 참... '좋은 흐름과 역양,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는 모습' 이지 않나 싶어요. 당시는 손으로 기사를 적던 시절이라 기자들의 악필도 잘 읽어내야 했지요. 그래서 저는 5분 뉴스는 꼭 30분 전에, 10분 뉴스는 40분 전에 도착했어요.(30분 전 또는 40분 전 '출발'이 아니라 '도착') 때문 뉴스 편집이 더 늦을 정도로 너댓 번을 되풀이해서 읽으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장기범 과장님은 그 걸 눈에 담아두셨었나 봅니다. 저는 퇴근할 때도 지난 뉴스를 가져가 자기 전에 다시 읽었습니다. 술에 취했어도 뉴스를 읽어야 잠이 왔습니다.

이/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처음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를 맡고 보니 다른 프로그램 할 시간과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형 토목·건축의 기공식, 준공식 등 의식 중계방송도 무척 많았으니까요. 사실 축구 중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질 않았습니다.

이/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은 무엇이었습니까?

1983년 10월에 아웅산묘역 폭파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분들의 시신이 도착하는 당일 낮 2시경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시신이 김포공항에 3시면 도착하는데 운구행렬 중계방송이 편성돼서 방송을 해주셔야겠다"고. 신문에 게재된 희생자 명단만 오려서 급히 공항으로 갔습니다. 수송기가 연착돼 방송 준비시간은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관이 무작위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의 관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전병은 규칙에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방송 원고는 없고 말해야 할 시간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국에서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서 나오는 문장으로 방송했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게 의식 중계방송이지요.

이/한: 방송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신지요?

장기범 아나운서입니다. 면접시험 때 5명의 면접관 중 가운데 앉으신 분이 묻더군요. "미국에도 외무부장관이 있습니까?" "미국에선 국무부장관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봉급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교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지요. 그분도 후에 들으니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를 아나운서의 길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정오뉴스〉, 〈대한뉴스〉 배정 등 인정해주시고, 호의로 대해 주셨습니다. 항상 강조하셨어요. "아나운서는 '쫓'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만, 술잔을 기울이며 오랜 시간 함께한 이규향 아나운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한: 선배님 방송은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버릇없습니다만, 구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사람이 구식인데(웃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마도 원고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네요. 멋을 내고 맛을 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일부터 멋 부리고 맛 내면 사람들이 금방 싫증냅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뉴스건 내레이션이건 1분에 350~370자 정도를 읽었어요. 그게 제가 제 역양으로 숨차지 않고 자연스럽게 낭독할 수 있는 글자 수였지요. 그러다 1985년 부장으로 진급했을 때, 간부가 되고나서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만두었습니다.

이/한: 책임자가 되어서는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실장이 되고나서 칠판에 '아나운서의 텔런트화 - 변해야 산다!'고 적고, 1990년 당시 입사한 17기 김병찬,

손범수, 정은아 등 신입사원 교육 방식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건전한 끼를 제대로 발산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신인 아나운서들에게 '모방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지요. 뒤따라한 사람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색을 찾아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한: 아나운서교육장에 대한 감회도 남다르시겠어요.

아나운서는 1927년 방송 개시 이래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지요.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아나운서실 책상을 재고 있던군요. 기획관리실에 문의했더니 "5분 뉴스나 하고 잡담하며 쉬는 아나운서실엔 책상 빼고 테이블만 놓으면 된다."라고 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주재 확대 간부회의에서 "아나운서는 대기조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항의해 원점으로 되돌려놓았지요. 그 후 5층에서 3층으로 더 큰 사무실을 배정받고 녹화 시설을 갖춘 별도의 교육장도 마련했던 겁니다.

이/한: 실장 시절 추진하신 일, 더 들려주세요.

이규향 김상준 아나운서 공로로 KBS 한국어연구회가 1990년도 세종문화상을 수상한 일, 연변 연길 흑룡강성 아나운서들 서울 교육 실시, 1993년 아나운서실 최초로 홍보 책자 제작, 그리고 제가 실장 되었을 때 아나운서실이 라디오본부 소속이었어요. 아니면 편성 또는 보도본부 소속이었는데, 사장 직속 부서가 되는 계속원사업이었죠. 서영훈 사장이 저희 요구를 들어줬는데, 제가 전주총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시 본부 소속이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이/한: 그 후 아나운서실 위원으로 정년퇴임 하신 거죠?

정년퇴임 아니었어요. 1994년에 경영진에서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으로, 방송인으로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봉직했는데...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 1호로 KBS를 떠났습니다. 이후 불교TV 4년, 그렇게 35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이/한: 동료들이 선배님을 각별히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고맙고 또 고맙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상대를 보고 판단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저 자체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기에 제 잣대의 눈금은 느슨할 수밖에 없어요. 포용하고 고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삶,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추억이 깃든 본관 지하 1층 아나운서교육장에서 후배 이재후, 한상현과 함께

이/한: 세월이 흘러서 보니 방송은 무엇이던가요?

노력입니다. '방송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사람이 방송이고 방송이 사람입니다. 좋은 방송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치우치지 않은 상식, 따뜻한 인간미, 보편적인 관점, 성실함 등. '내가 누군데, 이까짓 5분 뉴스...' 운운하는 사람은 좋은 방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진에서 느낀 인상처럼 간결하고 단호한 그는 평생을 소리 내어 읽고 또 읽었다. 눈으로 읽지 않고 반드시 입으로 읽었다. 그 읽음의 세월은 항상 긴장이었고 숨가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택한 아나운서의 길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회사 앞 중국음식점에서 아주 작은 청주 딱 한 병을 나누어 마시고 작별하는 시간, 문득 그의 등이 궁금해졌다. 남자의 등은 얼굴만큼이나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는가? 여의도공원 쪽을 향해 걸어가 그의 등은 아프리카 표범의 등처럼 넘실대며 빛나고 있었다.
글 / KBS 이재후, 한승헌

중계탑

“아나운서보다 어렵다, 선배가 된다는 것”

글 / 전남CBS 안효경(2003 입사, 현재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전남> 제작진행)

어느덧 14년이 흘렀지만 아나운서라는 이름은 제게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겨줍니다.

그런 제게 최근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후배 아나운서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매년 후배들을 만나는 중앙과 달리 지역 방송사에서 '후배'는 희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 귀한 존재가 한꺼번에 하나도 아닌 둘이 생겼습니다. 14년 만의 후배, 마냥 설렘과 반가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부담감의 무게 축이 더 컸다고나 할까요?

아나운서 선배님들께 이실직고합니다. 선배가 되고 보니 선배님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선배의 자리라는 것을... 그들의 발음을 지적할 만큼 나는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호흡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내 짧은 호흡을 혹여 들किन 않을까? 그들의 순발력을 논할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재미있는지? 이런 물음표와 함께 14년차 아나운서의 부족한 민낯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흔히 첫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신의 서툰 양육법에 자괴감을 느끼며 이런 말을 한다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란다' 딱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배가 미안하다. 선배도 아나운서 선배가 처음이란다"

좋은 선배가 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이 지면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좋은 가르침만큼 중요한 선배의 미덕이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제 아나운서로서 첫발을 내딛은 전남CBS 후배 아나운서들, 그대들이 이곳에 발힐 각오와 포부가 그대들의 미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왼쪽부터 유영주, 안광훈, 안효경(필자)

안광훈 아나운서

'리빌딩(Re-building)', 지난 시간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학생 아나운서',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는 모습을 비워내고 '아나운서 안광훈'의 모습이 채워져 가는 시간이기 에... 처음 녹음한 스팟이 방송됐을 때의 벅찬, 첫 뉴스 때 스튜디오를 울리는 시보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던 내 심장 박동소리...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앙은 늘 상승 그래프다.'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다. 우리가 보기엔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조금씩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나운서로서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만 지난다고 내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처음 방송할 때의 그 긴장감, 그 설렘을 늘 잊지 말아야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이 길, 이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유영주 아나운서

역설적인 시간이었다. 이 표현이 지난 시간들에 대한 함축하는 표현이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이곳에서 '꿈'이란 단어 하나를 붙잡고 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주변의 칭찬과 기대에 찬 눈빛은 많은 부담감이었다. 부족한 실력을 너무나 잘 알기에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받아들임과 연습의 반복이었다.

그래도 항상 난 지인들에게 "행복해"라는 말을 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따뜻한 선배님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함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이 뜻대로 안될 때 정말 속상하다가도 이내 행복하다는 마음이 쑥 올라오곤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60세의 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매일매일 전진하고 도전하는 아나운서 유영주가 될 것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최고'란 타이틀이 항상 이름 석 자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란 말이 내 인생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지현 CJB 아나운서 충북아나운서협회장에 선출

최지현 CJB 청주방송 아나운서가 2017년도 충북아나운서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6일 CJB·MBC·KBS·HCN(충북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북아나운서협회 정기 총회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나운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아나운서는 충주 MBC를 거쳐 CJB 청주방송에서 라디오 방송과 TV 뉴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부터 추가된 표준어 (2016년 12월 27일 국립국어원 발표)

추가	결판지다	거방지다	기존
	걸음음	건음음	
	끼탈스럽다	까다롭다	
	실뭉치	실뭉당이	
	-엘랑	-에는	
	주책이다	주책없다	



방 | 송 | 가 | 소 | 식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전했으나 격동의 시국 탓에 지상파 못 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홋카이도현 삿포로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금 16, 은 18, 동 16개의 메달을 거두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과 스노보드 사상

각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한 최다빈과 이상호를 비롯해 이승훈 스피드스케이팅 4관왕, 쇼트트랙 최민정과 심석희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번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은 SBS스포츠가, 또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jtbc가 중계하는 등 탄핵 정국과 김정남 암살 등 국내외 이슈에 밀려 예년과 달리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지상파에서 중계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오유경 아나운서
〈해피타임 4시〉 DJ 맡아

2월 6일 봄 개편에서 MC 허수경의 후임으로 해피FM 〈해피타임 4시〉를 맡았다. 1990년 20기로 입사, 〈생로병사의 비밀〉 〈소비자 고발〉 MC로 활약한 오유경은 2005년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받았다. 2012년 한류추진단으로 파견돼 K-wave 편집장, 사내 기업 KBS 에이브 대표를 지내고 2016년 아나운서실로 복귀, 현재 KBS 1TV 〈아침마당〉을 진행 중이다.

김완태, 김초롱 아나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김완태 아나운서(사진)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김연아와 함께 입장권 예매 시연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평창 올림픽 홍보에 앞장섰다.

김초롱 아나운서는 KBS 이현주, SBS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G-1년의 MC를 맡았다.

정미선 아나운서
〈뉴스토리〉 MC 맡아

3월 4일부터 〈SBS 뉴스토리〉의 MC가 기존 박선영 아나운서에서 정미선 아나운서로 교체되었다. 〈SBS 뉴스토리〉는 뉴스의 속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방송된다.

2003년 입사한 정미선은 〈SBS8뉴스〉 〈모닝와이드〉 〈목요컬처클럽〉 〈뮤직토피아〉를 진행했고, 2011년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했다.

조정식 아나운서
〈초인가족 2017〉서 연기 선택

SBS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시트콤 〈초인가족 2017〉에 조정식 아나운서가 출연한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초인가족 2017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초인'이라는 주제 아래,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감성, 풍자를 통해 그린 미니 드라마다. 조정식 아나운서는 주인공 여학생의 담임선생님 역할로 10여 회 출연하며, 연기력을 뽐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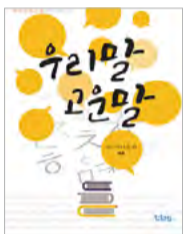
조은유 <의학강의쇼 암행어사> 진행



OBS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40분 암의 진단과 치료법, 나아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다루는 <의학강의쇼 암행어사>를 신설했다. 조은유 아나운서가 과잉 정보 시대에 넘쳐나는 건강정보 중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한다.



아나운서부가 방송한 <우리말 고운말> 책자 발간



아나운서부가 매일 오전 9시 56분, tbs라디오 (FM 95.1 MHz)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우리말 고운말>을 발간했다.

<우리말 고운말> 책자는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발간돼, 전국의 각 방송사 및 방송 관련 기관, 서울시 관련 기구, 대학 방송국, 통신원, 리포터 등 다양한 분야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신지혜의 영화음악> 19주년 맞아



CBS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지혜의 영화음악>(93.9mhz 오전 11시~12시)이 2월 2일 19주년을 맞았다.

<신지혜의 영화음악>의 오랜 팬들은 꽃바구니와 케이크, 와인을 보내와 축하했다.

CBS TV <교계뉴스> 이봉규 아나운서로 교체



가을 개편과 함께 CBS TV 교계뉴스를 진행하던 이강민 아나운서가 조이포유 'I love CCM' (낮 2시~4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하차하고, 3월 13일부터 음악FM '내가 매일 기쁘게'(새벽 4시~6시)를 진행하는 이봉규 아나운서로 교체되었다.

김윤주 이강민 직업체험강좌 참여

김윤주, 이강민 아나운서가 CBS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초등학교 대상 '직업체험강좌 - 현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에 참여했다. 아나운서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 아나운서란 무엇인가, 아나운서의 생활, 방송 현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 특집 방송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최혜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2월 17일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 공사 편이 많은 이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 생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은 전국 12개 극동방송 라디오와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되었다.



김지현, 아나운서부장으로 승진



1월 2일부터 김지현 아나운서가 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부장으로 발령받았다. 김지현 아나운서는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월~토, 8시~9시) 진행, 라디오 <사도 바오로의 사목서간>(월~금, 6시~7시) 제작, TV <책, 영화 그리고 이야기>(목 21:00~22:00)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같은 일자로 조한구 아나운서와 김부궁 아나운서가 라디오국 제작부 PD로 발령됨에 따라 <FM 음악공감>(매일 오전 9시 5분 ~ 11시)은 김슬애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우리말 바른말>의 제작은 김지현 아나운서가 맡았다.

성탄대축일 특집 진행 및 미사 중계



가톨릭평화방송이 지난 성탄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바티칸과 명동에서 거행되는 미사를 중계 방송했다.

12월 24일 자정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성탄 자정미사'는 라디오를 통해 김현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생중계 되었다.

12월 25일 성탄대축일 오전 5시 55분 '바티칸 예수성탄 대축일 밤미사'는 이정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같은 날 정오에 명동대성당에서 바치는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도 라디오를 통해 김슬애 아나운서의 중계로 방송되었다.

한편,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 - 헛디클로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로 진행된 성탄특집은 이정민 아나운서가 직접 딸기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보이며 청취자들과 소통하였다. (사진) 이정민 아나운서가 만든 케이크는 청취자들에게 선물로 전하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우리말 다들기 눈초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15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회의 제공

동화同化작용 (assimilation)

- 한국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 규범



'친구나 지인을 잘 사귀라'는 교훈은 서로가 닮아가기 때문이다. 언어에서도 두 음운이 이웃하였을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으로 모음동화와 자음동화가 있다. 「비가 나리다」 「짐을 내리다」처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화되었던 동사가 모음동화작용으로 오늘날에는 「내리다」로 통일되었다. 서울의 대표적 사투리인 「안경 → 앤경」 「호랑이 → 호랭이」 같은 현상은 모음동화작용 때문인 바, 방송언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자음동화만 다루기로 한다.

동일한 두 음이 이어질 때 「소파 → 쇼파」 「수퍼 → 슈퍼」처럼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은 단조로움에서 변화미를 찾는 심리현상으로, 동화의 반대 개념인 「이화異化현상」이 있다는 사실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자음동화에는 「대통령 → 대통령」처럼 앞의 음 「통」의 영향으로 다음 음절의 「령」이 「녕」으로 내려오면서 바뀌는 「순행順行동화」와 「신라 → 실라」와 같이 두 번째 음절의 「ㄹ」이 첫 음절의 「ㄴ」을 「ㄹ」로 거꾸로 영향을 주는 「역행逆行동화」가 있다. 그리고 「십리 → 십니」처럼 「비」과 「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하는 「상호相互동화」도 있다.

순행동화 예) 잠룡潛龍(대선 출마 예정 후보)[잠녕], 종로[종노], 명령[명녕], 상견례[상견네], 생산량[생산냥]
역행동화 예) 신록[실록], 권력[퀄력], 천리[철리], 국물[궁물], 대관령[대괄령]

상호동화 예) 잠룡雜龍(여러 명의 대선 후보)[잠녕], 협력[협녁], 독립[동닙], 급류[급뉴], 백로[뱅노]

자음동화작용은 「한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대표하는 규범으로 인간의 [발음 경제]라는 편리 본능에서 연유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1장 제1항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어의 맞춤법과 발음법의 대원칙이다. 즉 「사랑이, 사랑을, 바다가, 바다를」처럼 소리대로 적는 어휘는 표기대로 읽는 바 이를 「표음表音주의」라고 하며, 「사람/사라미, 사라물」 「하늘/하느리, 하늘들과 같이 적으면, 뜻을 알 수 없으므로 소리대로 적지 않는 「형태주의」 낱말은 표기대로 읽지 않는다는 정신이 담겨 있다. 이 규정을 사정할 당시 일부 심의위원들이 「국어학자들조차 쉽게 이해할 수 없으니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국어학계의 한글만능주의와 발음법 경시의 고질적인 풍토에서 수정 보완되지 못하였다.

필자뿐 아니라 국어에 관심 있는 언중이라면, 「동화작용」 하면 본능적(?)으로 「신라, 천리, 진로(참이슬의 옛 이름)」 「ㄴ, ㄹ → ㄹ, ㄹ」이 떠오를 것이다. 역명 「선릉」을 「설릉」으로 잘못 부르는 것이 좋은 예이다. 필자가 지하철공사 교육원 교수였던 인연으로 1, 2호선 역명驛名 방송 원고 감수를 맡은 바 있는데, 녹음 현장 불참으로 인해 이와 같이 되었다.

최근 방송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유진룡劉震龍(전 문체부 장관)과 박근령朴權始(전 대통령 동생)은 어떻게 발음되었을까? 방송인들이 [유질룡] [박글령]은 육감적으로 어색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유지농/

㉡유진농 [㉠박근녕/㉡박근녕]으로, ㉠과 ㉡가 2:8의 비율로 복수 발음되었다. 또 다른 예로 최윤락 아나운서의 이름은 [올락]보다는 [윤낙]이 자연스럽다. 오늘날 보이차와 와인 맛의 감별사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현대 언어학에서는 표준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native speaker」의 직관을 존중하라고 하였다.

「능陵」은 임금과 왕후의 무덤이다. ㉢선릉宣陵(성종과 계비의 능)[선능], 태릉泰陵(문정왕후의 능)[태능], 동구릉東九陵(조선시대 9위의 왕능)[동구능].

㉠과 ㉡의 예에서 각각 [농] [녕] [능]으로 발음되지만 형태주의 표기법에 따라 본음本音을 살려 「룡/龍」 「령/始」 「릉陵」으로 표기되는 바, 「선先발음 후後표기」의 절차는 「모든 언어는 「말」 이후에 「문자」가 생겼다」는 선언후문先言後文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여담으로 「서울과 신라」의 지명 유래가 붓다의 초기 설법 무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당나라의 고승 현장은 최초의 절 기원정사祇園精舍가 있는 사위성舍衛城(S'ravasti(슈라바스티)를 산스크리트어에 충실하기 위해 「실라벌성室羅筏城」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서라벌徐羅伐」과 「서벌徐伐」로 분화되었고, 다시 「서라벌徐羅伐」은 「사라스羅」로, 「서벌」은 「서울」로 음운이 변화된 것이다. 종교를 떠나서 한국의 문화는 70% 이상이 불교 문화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회 | 원 | 동 | 정

DJ협회 한용진 회장 취임 축하연 참석



임국희(전 MBC) 회장
DJ 1세대로서 3월 1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의 LP 뮤직 바 '막정별레(음반 13,000장 보유, DJ 성명진)'에서 열린 한국디스크자키협회 모임에 참석했다. 2010년 결성된 한국디스크자키협회, 제1대 최동욱, 제2, 3대 박원웅 회장에 이어 제4대 한용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모교 원광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



성경환(전 MBC)
원광대학교 초빙교수로 부임해 3월 2일부터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강의 중이다. 성 회원은 1982년 입사, MBC 아나운서 국장을 거쳐 성공회대 겸임교수, MBC아카데미 대표, 교통방송 대표를 지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전임교수 돼



표영준(전 KBS)
서울 신촌 소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표 회원은 공채 6기로 입사, 올림픽 및 세계대회 중계, 뉴스캐스터,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활약하다 2012년 정년퇴임했다

KBS사우회 이사 연임



김규홍 김지문 이인숙(전 KBS)

2월 24일 오전 11시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사우회(회장 이흥주) 정기 총회를 기해 출범한 제15기 집행부에서 이사로 연임되었다.



휘문문화예술제 사회, 협성대 석좌교수 돼



차인태(전 MBC) 휘문고 제55회 졸업생으로서 휘문문화예술제 MC를 맡았다. 개교 111주년을 맞아 2월 18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

에는 제43회 졸업생인 임택근 고문도 참석했다. 건강을 되찾은 최 부회장은 계룡대 장군들 대상 강연을 비롯해 지방자치제 특강 요청 등으로 바쁘게 지내며 올 신학기부터 협성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강북에서도 <수요 클래식음악회> 운영



정흥숙(전 MBC)
매주 화요일 압구정동 유리디체아카데미에 이어 첫째, 셋째 수요일에 종로에서도 음악감상회를 시작했다. 2월 1일부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종각역 11번출구 '문화공간 온'(서울시 종로구 종로11길 6, 3층, 02-730-3370)에서 <최명우 수요 클래식음악회>를 운영 중이다. 참가비 1만 원으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 최명우 음악평론가의 해설로 클래식을 감상하고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충청향우회중앙회 신년교례회 사회



박영웅 황랑(전 KBS)

교례회의 사회를 맡았다. 이날 모임에는 충청향우회 중앙회원 1,200여 명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기관장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2월 15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63시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향우회 중앙회 신년

<생활에 꼭 필요한 으뜸화법> 출간



김병래(전 KBS)
1969년 입사, 2004년 KBS부산 아나운서부장으로 정년퇴임까지 36년 아나운서 생활과 10여 년간의 강의를 통해 터득한 화법을 알기 쉽게 전하는 책 <생활에 꼭 필요한 으뜸화법>을 펴냈다.

대선주자 초청 정책토론회 사회



김명숙(전 KBS)
대선을 앞두고 한국여성정치연맹 주최로 2월 2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안희정, 심상정 편 등의 대선주자 초청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를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 진행 중이다. 1986년 KBS 13기로 입사해 서울올림픽 메인 앵커, KBS 스포츠 뉴스를 진행했던 김 회원은 현재 YTN FM(94.5Mhz) <당신의 전성기, 오늘>(월~금 10:20~12:00) MC를 맡고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 대변인으로 활약



고민정(전 KBS)
'인재 1호'로 영입되어 대선주자 문재인 캠프에 합류, 2월 22일 김경수 의원과 함께 공동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고 회원은 2004년 30기로 입사해 <국악 한마당>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더 가까이 고민정입니다>를 진행하다 1월 20일 퇴사했다.

한국차인연합회 고문으로 추대돼



이세진(전 KBS)
1월 12일, 900여 개 단위 차회를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차문화 단체인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 2017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세진 회원은 지난 30년간 김상준 감사, 이계진 부회장, 전우벽 차인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 차의 보급과 발전에 힘써왔다.

| 조사 弔 詞 |



고 김영우

2월 21일 오후 4시 45분 미국 북가주 월넛에서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961년 MBC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고인은 1963년 미국으로 유학 가 1965년 6월 12일 오전 7시 30분 LA 잉글우드 KTYM-FM 103.9MC를 통해 최초의 우리말 방송을 제작, 진행했다. 이후 50여 년간 한인방송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2014년 방송 기자재와 영상작품 등을 USC대학 한국학도서관에 기증한 바 있다. 3월 3일 오후 3시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고별 예배에는 아내와 1남 2녀 등 유가족을 비롯해 한국일보미주본사, 라디오 서울, (사)미주방송인협회, MBC미주사우회 친지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영우 아나운서님

미주 한인방송을 시작하고 미주방송인협회를 결성한 개척자지만, 늘 겸손하고 온유했던 선배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끼던 CD 한 장까지도 나누어주시며 동포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임을 일깨워주려고 애쓰신 그 정신을 되새깁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하신 30여 편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영상 자서전은 우리 한인 이민사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실 때 온화한 웃음 속에 멋쩍게 "반가워요!"하고 인사를 건네시던 선배님. 2, 3년 전부터는 몸이 불편하시어 미주방송인협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지요. "나 요즘 운전이 힘들어, 그래도 꼭 나가도록 해볼게. 그때 만나!"라고 말씀하시던 다정한 그 목소리.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한 아나운서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셨던 김영우 선배님, 주님의 품안에서 평안하소서!

송현식(전 KBS, 전 미주방송인협회 제18대 회장)



고 박태남

2월 22일 오전 9시 35분 향년 59세 한창 때에 아내와 1남 1녀를 남기고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1986년 KBS 1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2TV <뉴스 18:00>, 1TV <KBS 뉴스 네트워크>, 제1라디오 <정오뉴스>의 뉴스캐스터로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KBS 뉴스 와이드 박태남입니다>를 진행했다.

잘 가요, 사랑하는 후배 태남 씨!

태남 씨를 이렇게 보내야하다니, 허무한 심정 가누기 어렵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병가인 줄 알고 회사 출근만을 고대했는데...

뉴스의 달인처럼 흘러가던 KBS 제1라디오 <정오뉴스>의 목소리, 귓가에 생생하군요. 신이 나면 영화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내던 말씀씨도 일품이었고요. 태남 씨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낭랑한 음성으로 천국의 뉴스를 들려주겠지요.

부디 그 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평화와 사랑으로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변순복(전 SBS)

Zoom-in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KBNA) 제2대 회장 이보길(전 TBC) 회원

기자 발령장 들고 집에 들어간 날 아내는 '나는 당신이 아나운서라서 결혼했다'며 크게 화내

뉴미디어시대의 방송 신문 인터넷 전·현직 언론인 모임 회원들의 저술·서클활동 문화탐방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

2016년 6월 15일자 제22호 회원 동정란에 이보길 회원이 4월 20일에 한국방송신문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보길 회원을 만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인상은 과묵하지만 마주하면 편안한 목소리와 자상함으로 금세 상대방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친화력의 소유자이다.

글 / 황인우(전 KBS) 편집장



늦었지만 축하 인사드립니다.

사실 한국방송신문연합회를 결성하는 것부터 관여했지만, 경륜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시고 일 하는 게 적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내정자가 갑자기 고사하는 바람에 외람되게도 제가 제2대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저도 여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특히 기자 세계에는 부장급 이상 임원 중심의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범위를 넓혀,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와 전, 현직 언론인을 망라한 연합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재직했거나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해 가용 인력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서전을 내길 원한다면, 글쓰기는 물론 연기자를 투입해 재연 화면이 있는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전방위 제작이 가능합니다. 뉴미디어시대의 언론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7월 5일과 11월 28일, 1년에 두 차례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로 활동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이들에게 '한국의 신지식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200여 회원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보건복지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정영덕 자문 변호사 위촉, 이윤숙 비뇨기과, GS안과와 협약 체결, 중앙추모공원과 제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전에 제가 (사)대한언론인회 회원사업위원장을 맡아 8년간 건강포럼을 70여 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경력이 다 밑거름이 되었지요.

여기서 선배님의 경력을 좀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1943년생입니다. 원래 꿈이 광고인이었는데, 당시엔 광고학과가 없어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보사 사장을 담당하며 <신문평론>이란 잡지 교정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신문연구소 소장이던 오종식 전 한국일보 주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게 '아나운서 시험 보라'고 권유해 시험 삼아 본 것이 운 좋게 합격돼, 1967년 8월에 TBC 4기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동기로는 맹관영, 김양일, 박태웅, 임철호, 임양근, 권윤기 등이 있지요. 맹관영 동기는 저희 연합회 제호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나운서 시절, <내 고향 삼천리> MC, 육체미대회 중계 등을 했지만, 정적인 생활의 연속이 싫증나 김동국 사장님께 광고부로 옮겨달라고 직접 청원했지요. 그런데 자리가 없으며 보도국으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1973년 말에 억지로 기자로 전직했습니다. 기자 발령장을 들고 집에 들어간 날 아내가 "나는 당신이 아나운서라서 결혼한 거지, 기자였다면 결혼 안했다. 상의도 없이 그런 법이 어딤냐?"라며 불같이 화를 내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사람 모르게 전직을 추진했기 때문이지요.

보도국에서는 아나운서 출신답게 앵커로 활약하셨죠?

언론통폐합 후 KBS 제1라디오 <경제전망대> <뉴스중계탑> 앵커, KBS 1TV <상점경영> <잘살아보세> <앞서가는 농어촌> 제작·진행, 해설위원을 거쳐 2001년 정년퇴직 후 2007년까지 KBS에서 모바일 뉴스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졸업,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특임강사와 비전21국민희망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독도시사신문 논설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선배님 블로그도 있더군요?

지금은 쉬고 있어 면목이 없지만, 제가 KBS 보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빨리 다룬 편입니다. 보도국 동료들의 이메일 개통도 제가 다 주선하곤 했지요. 컴퓨터와 사진 등에 관심이 많다 보니 블로그를 만들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했습니다. 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 관여하면서 제 개인 블로그는 접어둔 상태입니다.

임기 중에 또 어떤 일에 힘쓰실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당장 오는 4월 14일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KBS 선배인 최충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특별위원장 사회로 <방송중간광고의 과제>란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4년 임기나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앞으로 저 자신 언론인으로서 공정한 보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 환경 조성은 물론 회원들의 저술 활동과 서클활동 지원, 문화탐방 등 실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 클럽에는 뒤늦게 합류하셨지만 모임엔 빼놓지 않고 참석하시는데요. 아나운서클럽,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어떤 모임보다 정겹고 화기애애하고 재미있습니다. 순수한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매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직자들 중에는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잊지 말아야지요. 아나운서 선후배의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아나운서클럽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3월 10일까지 입금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이후재(전 KBS)
30만 원



전유벽(전 KBS)
50만 원

축하합니다

- 오상진(전 MBC) 김소영(MBC) 4월 30일 혼인
- 조우중(전 KBS) 정다은(KBS) 3월 16일 혼인
- 남궁미(전 MBC) 3월 5일 딸 안성연 양 혼사
- 박진택(febs서울) 2월 25일 모션그래픽디자이너와 혼인
- 이승현(KBS) 1월 21일 회사원과 혼인
- 김정근(MBC) 이지애(전 KBS) 1월 14일 득녀
- 엄지민(KBS), 유혜영(SBS) 1월 4일 득남

조의를 표합니다

- 박태남(KBS) 2월 22일 본인상
- 김영우(전 MBC) 2월 21일 본인상
- 성연미(전 KBS) 2월 13일 시모상
- 황우경(전 KBS) 2016년 12월 30일 배우자상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근 3월 7일 MBC 퇴사
- 고민정 1월 20일 KBS 퇴사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목멱회 선배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다?



김관동 KBS 아나운서실장은 유지철 부장과 함께 2월 28일, 남산 중앙방송국에서 근무한 선배 아나운서 20명이 함께한 목멱회(회장 정희준) 정기 모임에 참석해 서울 낙원동 호반에서 오찬을 베풀며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었다

발효전문 건강기업

 이든네이처

올바른 식사는 우리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뿌리와 줄기와 잎. 식물의 섭취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람과 햇볕, 미생물이 만든
슬로우푸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Healing